

첫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Mother's Child Rearing Practices: Variables Related To The First-Born Child

임 회 수

Lim, Hee Su

박 성 연**

Park, Seong 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other's child rearing practices by mothers of their first-born child as a function of child's sex, temperament, and social class and of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158 mothers of 3-year-old first-born children in Seoul. Block (1984)'s CRPR, Buss and Plomin (1975)'s EAS, and Roach et al.'s MSS (1981) were used to measure maternal child rearing practices,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respectively. The statistical methods for data analysis included t-test,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showed there were no sex of child differences in child rearing practices. Social class differences were found in "encouragement of independence", "enjoyment of child" and "openness to experience" in maternal child rearing practices. There were differences in maternal child rearing practices by child's temperament and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In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maternal child rearing practices was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1. 서 론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게 되는 생활의 장이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환경이다.

모든 어린이는 가정에서 인생을 출발하며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가족과의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생각하고 발달한다. 즉 우리의 최초의 인간관계는 어머니와 더불어 비롯되어 차츰 다른 가족원과의

* 본 논문은 1993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인간관계로 확대되면서 사회화의 과정을 밟게 되며 그 기초는 후에 사회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의 모형이 되는 것이기에 특히 중요하다.(박명희, 1988)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취지하에 우리나라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그 연구대상이 유아나 학동기 아동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아동의 출생순위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어린 연령의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와 출생순위를 통제한 연구가 부족하며 양육행동의 연속성이 있는지를 못박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Watson(1965)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성격에 기인하며 그것은 가족 구성원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론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의 개인적 조건, 자녀의 개인적 조건들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형성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관련 변인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그 가정이 속한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개인적 조건(예, 결혼만족도), 아동의 개인적 조건(예, 기질이나 아동의 성)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아동의 성과 기질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아동의 특성이 얼마만큼이나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예견해 볼 수 있게 할 것이며 사회계층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고려되지 못한 출생순위의 통제나 어린 연령의 자녀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만 3세 전후의 첫자녀를 가진 어머니들

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 아동의 기질, 사회계층,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며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와 이 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녀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계층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자녀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 자녀의 성, 사회계층,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자녀의 성 및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자녀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Rothbart와 Maccoby(1966), Noller(1980), 하승민(1984)은 부모는 자기와 다른 성을 가진 자녀에게 더 관대하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Baumrind(1971), Magolin과 Patterson(1975)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에 따라 영향을 받으나 어머니는 자녀의 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Lasko, 1954; Meddinus 와 Johnson, 1969; Watson과 Lindgren, 1973)은 대부분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주로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부모는 보다 많은 주의와 지도를 하며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동의 성 및 출생순위와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은 그 결과에 있어 일관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연구대상이 되는 아동들의 연령층이 다양하며 조사대상자-부모 또는 아동-의 표집 방법이 일관되지 못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자체가 여러 복합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변인의 통제 여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이 유아기나 학동기인 아동에 국한되어 있고 그 결과들은 자녀의 성에 따라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과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Dropleman과 Schaefer, 1963; Lasko, 1954; Watson 과 Lindgren, 1973)

2. 사회계층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계층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계층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Shaefer와 Bayley, 1960; Jones 등, 1980; 오왕묵, 1984; 신경종, 1993) 즉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에 대해 애정적, 민주적, 합리적인 바람직한 방향의 양육태도를 보이는 반면,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거부적, 통제적, 권위적, 과보호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런 대

부분의 사회계층에 따른 양육행동 연구는 주로 유아기나 학동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보다 더 어린 아동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자녀의 기질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Milliones(1978)의 연구에서 2-24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행동(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형과 모자간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포함한)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바람직한 행동은 아동의 순한 기질과 상관이 있었다. 또한 Gordon(1981)의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어머니의 통제 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즉 까다로운 아동의 경우,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았으며 아동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쉽게 들어주었다. 반면에 순한 아동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모자 상호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정은숙(1984)이 만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아동의 기질은 기질 범주 중 규칙성, 정서성이 애정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활동수준이 제한적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천희영(1992)의 연구에서는, 3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기질 유형을 파악하고 기질 유형과 어머니 양육태도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아동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동

시에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그에 반응하는 특성에 의해 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쌍방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쌍방적인 관점에서 특히 아동이 능동적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행동

Paulson(1972)의 연구에서 부부 사이의 조화나 부모간의 일치하는 부모-자녀간의 이해를 돕고 수용적이게 하며, 반면에 결혼생활의 불만족으로 인하여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 자녀를 대한다거나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자녀에게 투사하게 되면 자녀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Walters와 Stinnett(1971)는 부모의 조화된 관계가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통합된 성격 및 행동발달에 결정적 요인이며 부모간 계속되는 불화는 자녀에게 갈등적인 경험으로 남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국민학교 1, 2학년 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문현(1983)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만족도 수준(상, 중, 하)에 따라 양육태도를 비교한 결과,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이 애정, 수용적이었으며 낮은 집단이 적대,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노명희(1991), 윤경화(1992)의 연구들에서도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애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한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위의 이론적 고찰들을 종합해 볼때, 자녀의 성 및 출생순위, 사회계층,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들이며 이에 관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5, 6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므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육행동에 대한 발달적 관점을 제시해 주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자녀가 만 3세 전후(생후 36개월 전후)인 158명의 어머니 들이며 대상 어머니의 표집지역은 부모의 사회계층을 분류하기 위하여 상, 중상, 중하에 해당된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14개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 성이 남아인 경우는 89(56.3%)명, 여아인 경우는 69(43.7%)명이었으며, 자녀의 연령은 생후 25개월에서 47개월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연령은 35.6개월이었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2.9세이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0.2세였으며 이숙(1988)의 사회계층 분류기준에 따라 아버지의 직업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계층을 분류한 결과 점수 분포가 최저 7점에서 최고 18점까지 분포되어 있었는데 158명중에 상류에 해당하는 점수 분포를 가진 비율은 24.7%(39명)이며 중상류는 55.1%(87명), 중하류는 20.3%(32명)를 차지하고 있다. 분류기준에는 하류층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류층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진 연구 대상자가 없었다.

B.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행동 측정도구는 3-12세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했던 Block(1984)의 CRPR(Child Rearing Practices Re-

port)을 만 3세아를 둔 어머니들에게 맞게 번역, 수정 사용하였다. Block(1984)의 CRPR은 원래 총 90문항으로 25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3-12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자의 자녀의 발달단계와는 맞지 않는 양육행동 문항들이 많아 그러한 문항들과 범주들을 제외시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첨가하여 총 42문항으로 10개의 범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양육행동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범주는 '독립성의 격려', '과보호', '아동에 대한 염려',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초기훈련에 대한 강조', '부정적인 감정표현', '애정표현', '경험에 대한 개방성', '비일관성', '합리적인 지도'였다.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부모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유아용 EAS로서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한 후 총 14문항의 3가지 범주(사회성, 정서성, 활동성)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oach, Frazier와 Bowden(1981)이 개발한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번역하여 간략형으로 수정, 사용한 유은희·박성연(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 측정도구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나타내주는 측정도구이다. 이 세가지 측정도구들은 '모두 매우 그렇다'의 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평정하는 Likert형 척도이다.

C.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예비조사, 본조사 순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는 1993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 시내 K동에 거주하고 첫자녀가 만 3세(생후 30-40개월) 전후인 어머니 34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68문항), 자녀의 기

질(20문항),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17문항)에 관한 질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의 신뢰도가 낮거나 표현이 부적절한 것에 대하여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어머니의 양육행동 47문항, 자녀의 기질 14문항,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17문항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총 86문항)를 본조사에서 사용하였다. 본조사는 1993년 1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서울 시내 전역의 14개동에 위치한 어린이 집, 유아원, 놀이방등을 중심으로 첫자녀가 만 3세 전후(생후 25-47개월)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한 질문지는 200부였으며 이중 회수된 질문지는 165부였다. 그러나 165부중 7부가 대상 어머니의 자녀들의 연령이 부적절하거나(즉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많은 경우), 첫자녀가 아닌 자녀에 대해 응답한 것이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158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처리는 spss/pc⁺를 사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추후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A.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구체적인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모든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개관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 중 주목할만한 결과들은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부정적인 감정표현($r = .410, p < .001$), 비일관성($r = .335, p < .001$)과 활동성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r = .274, p < .001$)과 매우 유의한

〈표 1〉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13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독립성의 격려															
2. 과보호	-.189														
3. 아동에 대한 열려	.039	.463**													
4.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423**	.314*	.293**												
5. 초기 훈련에 대한 강조	.370**	-.118	-.052	.271*											
6. 부정적인 감정표현	-.196	-.066	-.020	-.375**	-.181										
7. 애정표현	.394*	.328**	.250*	.597**	.251*	-.322**									
8. 경험에 대한 개방성	.521**	-.036	-.006	.395**	.230*	-.160	.466**								
9. 비일관성	-.251*	.253*	.180	-.218*	-.268	.471**	-.192	-.126							
10. 합리적인 지도	.403**	.065	.138	.446**	.196	-.396**	.512**	.496**	-.370**						
11. 사회성	.119	-.085	-.038	.056	.062	-.121	.087	.016	-.062	.101					
12. 정서성	-.179	.133	.089	-.198	-.172	.410**	-.169	-.029	.335**	-.187	-.242*				
13. 활동성	.128	-.083	-.067	.178	.045	.048	.067	.274*	-.001	.049	.452**	-.174			
14. 사회계층	.205*	-.089	-.102	.213*	-.034	-.065	.110	.370**	-.094	.188	-.021	.012	.134		
15. 아동의 성별	-.0888	-.001	.030	.007	-.150	-.035	-.101	-.017	-.003	.096	-.025	-.085	.119	.020	.053
16.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203*	-.089	-.100	.259*	.113	-.221*	.230*	.301**	-.152	.292**	.035	-.186	.189	.193	.095

*p<.01 p<.001

↘ 명목측정된 변인은 가변수화하여 통계에 사용하였음.

남아:1
여아:0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층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r=.370, p<.001$)과 결혼만족도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r=.301, p<.001$), 합리적인 지도($r=.292, p<.001$)와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자녀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자녀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각 10개의 범주들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녀의 성(남, 여)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

머니의 양육행동의 모든 범주들은 남아와 여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남아와 여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모든 범주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연령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생후 25-47개월) 어머니들이 남아와 여아에게 성 유형화된 양육태도 보다는 자녀를 돌보는(caring)것에 주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는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성차가 없다는 선행연구(Baumrind, 1971; Magolin과 Patterson, 1975)에 비추어 볼때 연구대상을 어머니로만 제한시킨 것에 따른 결과로도 풀이될 수 있다.

<표 2> 자녀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

종속변인	독립변인		여 아 (N=68)		t
	남 아 (N=85)		X	S. D	
독립성의 격려	14.62	2.21	14.71	2.32	-.22
과보호	12.91	2.17	13.16	2.12	-.73
아동에 대한 염려	10.86	2.43	10.73	2.11	.35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17.64	2.20	17.43	1.88	.61
초기훈련의 강조	9.33	1.48	9.59	1.54	-1.05
부정적인 감정표현	6.09	1.81	6.35	1.67	-1.13
애정표현	15.80	1.92	15.88	1.95	-.27
경험에 대한 개방성	11.85	1.84	11.63	2.21	.68
비일관성	9.24	1.69	9.32	1.86	-.31
합리적인 지도	12.06	1.54	11.56	2.02	1.66

C. 사회계층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각 범주들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계층(상, 중상, 중하류)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계층(상, 중상, 중하류)에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의 10개의 범주 중 독립성 격려($F=3.09, p<.05$),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F=3.68, p<.05$), 경험에

대한 개방성($F=12.49, p<.001$)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독립성 격려,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범주들에 대해서 Duncan의 추후 검증을 실시 해 본 결과, 어머니

의 양육행동 중 독립성 격려 부분에서는 상류층과 중하류층간에 유의한 차이($p < .05$)가 있었는데 즉, 상류층 어머니가 중하류층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독립성을 더 많이 격려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부분에서도 상류층과 중하류층간에 유의한 차이($p < .05$)가 있었는데 즉, 상류층의 어머니가 중하류층 어머니보다 자녀에게서 얻는 즐거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류층과 중하류층, 상류층과 중상층, 중상층과 중하류층 간에 유의한 차이($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즉, 상류층 어머니가 중상층과 중하류층 어머니보다는 자녀에게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또한 중하류층 어머니보다는 중상층 어머니가 경험에 대한 개방을 많이 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사회계층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

종속변인		독립성의 격려					과 보 호				
		N	X	S. D	F	Duncan	N	X	S. D	F	
사 회 계 층	상	39	15.33	1.92		A	39	12.59	2.16		
	중·상	83	14.58	2.10	3.09*	A B	85	13.24	2.14	1.23	
	중·하	31	14.03	2.81		B	30	12.97	2.13		
종속변인		아동에 대한 염려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N	X	S. D	F	Duncan	N	X	S. D	F	Duncan
사 회 계 층	상	39	10.36	2.33			39	18.21	1.88		A
	중·상	84	10.90	2.18	1.08		84	17.49	2.06	2.68*	A B
	중·하	31	11.10	2.51			32	16.91	2.12		B
종속변인		초기훈련의 강조					부정적인 감정표현				
		N	X	S. D	F	Duncan	N	X	S. D	F	
사 회 계 층	상	39	9.18	1.52			39	6.08	1.20		
	중·상	85	9.48	1.45	.91		87	6.15	1.45	.97	
	중·하	31	9.66	1.62			31	6.52	1.57		
종속변인		애정 표현					경험에 대한 개방성				
		N	X	S. D	F	Duncan	N	X	S. D	F	Duncan
사 회 계 층	상	39	16.26	1.94			39	12.77	1.74		A
	중·상	83	15.67	1.88	1.28		84	11.73	1.90	12.49***	B
	중·하	31	15.74	2.02			30	10.50	1.94		C
종속변인		비일관성					합리적인 지도				
		N	X	S. D	F	Duncan	N	X	S. D	F	
사 회 계 층	상	39	8.89	1.77			38	12.34	1.70		
	중·상	84	9.40	1.51	1.18		83	11.77	1.71	2.49	
	중·하	31	9.39	2.32			31	11.42	1.98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자녀의 기질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

종속변인		독립성의 격려				과 보 호			
		N	X	S. D	t	N	X	S. D	t
독립변인	사회성	73	15.05	1.95	-1.87	74	12.80	2.20	1.24
	높음	78	4.28	2.42		78	13.23	2.10	
정서성	높음	64	14.36	1.88	1.34	63	13.25	2.21	-1.10
	낮음	88	14.83	2.45		90	12.87	2.10	
활동성	높음	73	15.14	2.21	-2.38*	75	12.79	2.29	1.28
	낮음	78	14.28	2.21		77	13.23	2.01	
종속변인		아동에 대한 엄려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독립변인		N	X	S. D	t	N	X	S. D	t
	사회성	73	10.47	2.26	1.63	74	17.59	2.02	-0.39
높음	78	11.06	2.25	78		17.46	2.02		
정서성	높음	62	11.00	2.15	-1.11	63	17.33	2.15	.98
	낮음	90	10.59	2.32		90	17.67	2.01	
활동성	높음	74	10.61	2.40	.85	75	17.85	2.01	-1.75
	낮음	77	10.92	2.13		77	17.27	2.08	
종속변인		초기훈련에 대한 강조				부정적인 감정표현			
독립변인		N	X	S. D	t	N	X	S. D	t
	사회성	73	9.56	1.55	-1.11	74	6.01	1.27	1.51
높음	78	9.29	1.46	81		6.36	1.54		
정서성	높음	74	9.30	1.46	.81	65	6.78	1.53	-4.44***
	낮음	89	9.49	1.51		91	5.78	1.18	
활동성	높음	73	9.62	1.53	-1.45	75	6.13	1.44	.62
	낮음	78	9.27	1.46		80	6.28	1.42	
종속변인		애정표현				경험에 대한 개방성			
독립변인		N	X	S. D	t	N	X	S. D	t
	사회성	73	15.97	1.95	-.95	73	11.81	2.07	-.16
높음	78	15.68	1.79	78		11.76	1.96		
정서성	높음	63	15.49	1.80	1.61	63	11.73	1.91	.07
	낮음	90	15.99	1.93		89	11.75	2.09	
활동성	높음	75	16.00	2.07	-1.17	74	12.43	2.04	-4.13***
	낮음	77	15.64	1.74		77	11.16	1.76	
종속변인		비일관성				합리적인 지도			
독립변인		N	X	S. D	t	N	X	S. D	t
	사회성	74	9.11	1.99	.85	72	12.07	1.79	-1.36
높음	77	9.35	1.45	78		11.68	1.73		
정서성	높음	63	9.95	1.46	-4.09***	63	11.62	1.61	1.19
	낮음	89	8.83	1.79		88	11.97	1.87	
활동성	높음	74	9.14	2.00	.97	72	12.08	1.93	-1.52
	낮음	77	9.42	1.53		78	11.64	1.62	

*p<.05 **p<.01 ***p<.001

D. 자녀의 기질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 범주를 평균 점수[사회성(X=20.46), 정서성(X=6.29), 활동성(X=12.39)]를 기준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가진 집단과 평균 미만의 점수를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의 차이를 t-검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기질에 따라서 양육행동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범주들은 <표 4>에서 보듯이, 자녀의 기질중 사회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모든 범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녀의 기질 중 정서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정서성 점수가 높은 아동들과 낮은 아동들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t=-4.44, p<.001), 비일관성(t=-4.09, p<.001)에 있어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주 울고 보채며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을 가진 정서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어머니들은 그 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많

이 하며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정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의 기질 중 활동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활동성 점수가 높은 아동들과 낮은 아동들에 대한 어머니의 독립성 격려(t=-2.38, p<.05), 경험에 대한 개방성(t=-4.13, p<.001)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아동에게 독립성을 격려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는 것과 정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에 따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결혼 만족도 점수가 평균 점수 이상인 집단과 평균 점수 미만인 집단으로 분류하여 이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어머니 양육행동의 각 범주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표 5>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상·하집단)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

종속변인		독립성의 격려				과 보 호			
		N	X	S. D	t	N	X	S. D	t
독립변인	결혼 높음	86	15.01	2.33	-2.15*	87	13.10	2.24	-.47
	만족도 낮음	66	14.23	2.09		66	12.94	2.03	
종속변인		아동에 대한 염려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N	X	S. D	t	N	X	S. D	t
독립변인	결혼 높음	86	10.72	2.40	.43	86	18.17	1.74	-4.79***
	만족도 낮음	66	10.88	2.06		67	16.67	2.14	
종속변인		초기훈련에 대한 강조				부정적인 감정표현			
		N	X	S. D	t	N	X	S. D	t
독립변인	결혼 높음	86	9.55	1.51	-1.02	88	5.98	1.26	2.46*
	만족도 낮음	67	9.30	1.48		68	6.53	1.54	
종속변인		애정표현				경험에 대한 개방성			
		N	X	S. D	t	N	X	S. D	t
독립변인	결혼 높음	86	16.26	1.78	-3.38***	86	12.15	2.07	-2.87**
	만족도 낮음	67	15.24	1.93		66	11.23	1.83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일관성				합리적인 지도			
		N	X	S. D	t	N	X	S. D	t
결혼	높음	86	8.93	1.79	2.73**	85	12.19	1.73	-2.83**
만족도	낮음	67	9.70	1.65		66	11.38	1.76	

*p<.05 **p<.01 ***p<.001

<표 6>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 범주에 대한 제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독립성의 격려		과보호		아동에 대한 염려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초기훈련에 대한 강조	
		B	β	B	β	B	β	B	β	B	β
사회계층		.595	.178*	-.262	-.079	-.302	-.086	.516	.164	-.120	-.052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045	.144	-.015	-.048	-.022	-.068	.053	.181*	.022	.106
아동의 성		-.533	-.120	.073	.017	.222	.048	-.172	-.042	-.530	-.175*
사회성		.040	.063	-.029	-.046	-.002	-.003	-.023	-.039	.001	.003
정서성		-.205	-.142	.158	.111	.113	.075	-.214	-.158	-.159	-.162
활동성		.041	.038	-.027	-.026	-.037	-.034	.116	.117	.017	.023*
constant		11.504		14.191		12.200		14.214		9.587	
R ²		.114		.032		.026		.131		.069	

종속변인 독립변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정적인 감정표현		애정표현		경험에 대한 개방성		비일관성		합리적인 지도	
		B	β	B	β	B	β	B	β	B	β
사회계층		-.139	-.067	.215	.078	.891	.295**	-.240	-.093	.416	.157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033	-.171*	.052	.203**	.059	.211**	-.022	-.091	.061	.246**
아동의 성		-.036	-.103	-.478	-.131	-.291	-.073	.082	.024	.257	.073
사회성		-.047	-.119	.027	.051	-.054	-.095	-.011	-.022	.056	.112
정서성		.344	.386***	-.158	-.133	.027	.021	.367	.332***	-.145	-.127
활동성		.139	.212*	-.011	-.013	.237	.249**	.076	.094	-.083	-.010
constant		5.221		13.614		5.185		7.719		8.643	
R ²		.225		.095		.240		.135		.138	

*p<.05 **p<.01 ***p<.001

B: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 명목측정된 변인은 가변수화하여 통계에 사용하였음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남아:1 여아:0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범주들은 독립성 격려($t = -2.15, p < .05$),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t = -4.79, p < .001$), 부정적인 감정 표현($t = 2.46, p < .05$), 애정표현($t = -3.38, p < .001$), 경험에 대한 개방성($t = -2.87, p < .01$), 비밀관성($t = 2.37, p < .01$), 합리적인 지도($t = -2.83, p < .01$)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과 애정표현에 있어 결혼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결혼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자녀로 인한 즐거움과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점수가 결혼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결혼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녀가 여러가지 경험을 해 볼 수 있게 하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범주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서 아동에게 비밀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비밀관성' 범주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독립성 격려'는 결혼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점수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결혼 만족도가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애정, 수용적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양 문현(1983), 이 정희(1986)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F.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모든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자녀의 성, 사회계층,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각 요인이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양육행동의 각 범주들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녀의 성, 사회계층, 자녀의 기질의 각 범주들,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범주 중 '독립성의 격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계층($\beta = .178, p < .05$)이었다. 즉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독립성 격려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beta = .181, p < .05$)로 나타났다. 즉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초기 훈련에 대한 강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성($\beta = -.175, p < .05$)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초기훈련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부정적인 감정 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beta = -.171, p < .05$), 아동의 기질 특성 중 정서성($\beta = .386, p < .001$), 활동성($\beta = .212, p <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가 낮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정서성이 높을수록 즉 자주 울고 보채며,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아동일수록 어머니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 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beta = .203, p < .0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 만족도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아동에게 애정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beta = .211, p < .01$), 사회계층($\beta = .295, p < .01$),

아동의 기질 특성 중 활동성($\beta=.249,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비일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기질 특성 중 정서성($\beta=.332,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주 울고 보채며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의 정서성이 강한 아동에게 어머니는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인 지도'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beta=.246,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 만족도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아동에게 합리적인 지도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행동 범주들중 '과보호', '아동에 대한 염려', '초기훈련에 대한 강조'는 R^2 값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 양육행동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다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육행동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자녀의 성,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사회계층 모두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나 이중 양육행동의 대부분의 범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들중 사회계층에 대한 β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계층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사회계층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차이가 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V. 요약 및 논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세 전후의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모든 범주에 있어 남아와 여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이 된 자녀들의 연령(생후 25-47개월)이 발달단계상, 어머니가 남아와 여아에 대해 각각 다르게 대하는 성유형화된 양육태도가 나타나는 시기라기 보다는 자녀의 안전을 염려하고 보호하며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식사습관이나 배변훈련,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치고 앞으로의 자녀의 지적인 발달을 위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남아와 여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버지와의 달리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있어서 성차에 따른 구별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여러 연구들 (Baumrind, 1971; Magolin과 Patterson, 1975)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사회계층 (상, 중상, 중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범주들은 독립성 격려,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었다. 즉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독립성 격려,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적 지위가 높기때문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이 클 것이므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느끼는 즐거움이나 만족감이 사회계층이 낮은 어머니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계층이 높은 어머니들일수록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우려 하며 여러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의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 민주적, 합리적인 바람직한 방향의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많은 선행연구들(Shaefer와 Bayley, 1960; Jones 등, 1980; 오왕목, 1984;

신경종, 1993)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세째, 아동의 기질중 사회성 점수의 상·하 집단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모든 양육행동 범주에 있어서 사회성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의 정서성 점수의 상·하 집단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특히 '부정적인 감정표현'과 '비일관성' 범주에서만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로 보아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은 어머니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들을 더 많이 유도해 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의 활동성 점수의 상·하 집단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독립성 격려', '경험에 대한 개방성 범주'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아동일수록 어머니는 이런 아동에게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며 더 많은 독립성 격려와 여러가지 경험을 하게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범주는 '독립성 격려',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부정적인 감정표현', '애정표현', '경험에 대한 개방성', '비일관성', '합리적인 지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독립성 격려',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애정표현', '경험에 대한 개방성', '합리적인 지도' 점수가 높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표현', '비일관성'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 생활의 전반에 만족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로 인해 즐거움과 만족을 더 많이 얻으며 따라서 자녀에게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의 양육행동을 보여 줄 수 있으며 반대로 결혼생활에 만족

하지 못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로 인한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자녀에게 자연히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대부분의 범주(과보호, 아동에 대한 염려, 초기훈련에 대한 강조 범주를 제외하고는)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생활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섯째, 자녀의 성, 자녀의 기질, 결혼만족도, 사회계층이 첫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양육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은 양육행동 범주중 '독립성 격려'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기질중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범주중 '부정적인 감정표현', '비일관성'에, 활동성은 '부정적인 감정표현',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아동의 성은 '초기훈련에 대한 강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느 한 요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 즉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 특성이나 어머니가 속해 있는 사회계층의 특수한 문화의 영향력, 또는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와 같은 요인들이 작용해 특정한 방향의 양육행동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여러 요인들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변인인 것으로 나타난 것

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녀들의 이후의 성격형성 과정에 부모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Paulson, 1972; Walters와 Stinnett, 1971)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어린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첫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의 연속성을 알아보는 후속연구를 위한 일차적이며 기초적인 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자녀의 성,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사회계층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혀 봄으로써,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특성이나 어머니의 특성, 또는 사회계층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앞으로 본 연구에 참가했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둘째 자녀가 본 연구를 실시했던 그 연령에 이르렀을때에 다시 한번 어머니의 둘째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알아봄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연속성이 있는가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노명희(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경종(1993).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문현(1983).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왕묵(1984). 사회계층에 따른 육아방식에 관한 일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은희·박성연(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1), 139-158.
- 윤경화(1992). 유아의 자아개념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은숙(1984). 아동의 기질과 인기도 및 양육태도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천희영(1990).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하승민(1984).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와 자녀양육 가치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 Block, J. H., Block, J., & Roberts, G. C. (1984). Continuity and Change in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55, 586-597.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st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Droppleman, L. F., & Schaefer, E. S. (1963). Boys' and Girls' report of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6), 648-654.

- Gordon, B. N. (1981). Child Temperament and Adult Behavior: An Exploration of 'Goodness of Fit'.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1, 153-167.
- Jones, D. C., Rickel, A. U., & Smith, R. L. (1980).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and Social Problem-solving Strategies among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3), 241-242.
- Lasko, J. K. (1954). Parent Behavior toward First and Second Children.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49, 97-137.
- Magolin, G., & Patterson, G. R. (1975). Differential Consequences Provided by Mothers and Fathers from Their Sons and Daugh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1(4), 537-538.
- Medinnus, G. R., & Johnson, R. C. (1969).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NY: John Wiley & Sons, Inc.
- Milliones, J. (1978).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Behaviors, Child Development, 49, 1255-1257.
- Paulson, M. J. (1972). Family Harmony. Child Development. NY: Prentice Hall, 600-602.
- Roach, J., Frazier, L. P.,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ac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Rothbart, M. K., & Maccoby, E. E. (1966). Parent's Differential Reactions to Sons and Daugh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237-243.
- Schaefer, E. S., & Bayley, N. (1960). Consistency of Maternal Behavior from Infancy to Pre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1), 106.
- Walters, J., & Stinnett, N. (1971). Parent-Child Relationship: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Watson, R. I. (1965), Psychology of the Child. Tokyo: Japan.
- Watson, R. I., & Lindgren, H. C. (1973). Psychology of the Child 2nd ed. NY: John Wiley & Sons, Inc.